



오늘의 날씨 | 비 | 기온 22°C/32°C

2017년 6월 29일 목요일 (음력 5월 29일)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석간



구독신청 02-722-8165

제 837호



“UN, 탈동성애자 인권도 보호하라”

“UN은 동성애자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라”며 ‘제1차 탈동성애인권 전세계 동시캠페인’이 시작됐다. 이를 위한 집회가 28일 오후 한국에서는 명동 유네스코 앞에서 있었으며, 각국 UN사무소 또는 거주도시 랜드마크 앞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특히 28일은 1969년 스톤월 항쟁일로, 동성애 축제의 기원일이기도 하다. ▶관련설명면

선민네트워크

“대안교육 진흥을 위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주관으로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최근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대안교육이 활발하게 활성화 됐지만, 대안교육 역시 어려운 점은 많다. 이를 극복하고자 28일 낮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박현수 교장(별무리학교), 기독교대안학교연맹 범체팀장)은 이 자리에서 발제를 통해 ‘대안교육 진흥을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할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박현수 교장은 먼저 대안교육 현장의 소리가 어떠한 것인지 알려줬다. 그는 “지금 대안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의 고민은 대안교육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공공성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 말하고, “미안한 대안학교가 지금은 500여 개는 족히 되리라 본다”며 “반면 대안학교 설립규정을 계속 완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인가를 받은 사립 대안학교는 22개교(5% 미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장은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다 해도 계속해서 인가를 받지 않겠다는 목소리와 인가를 받고 싶으나 인가를 받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함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인가를 받고 싶지만 시설과 교육과정 운영, 인가 권리의 과도한 권한 남용, 교사의 선발 기준 등 인가 문턱이 여전히 높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고 또 ▶대안교육의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 ▶대안교육 운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등의 이유로 인가 요건이 아무리 낮아져도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제도권으로 합류되는 인가는 받고 싶지 않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보도자료(2015.5.12)에 의하면 매년 5만 여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하고 있다. 2010년에서부터 5년간 누적인 원이 28만 명이라고 한다. 박 교장은 “공교육을 떠나 있는 학생이 이와 같은데도 아직 이들에 관한 관심이 많지 않다”고 지적하고,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시작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했다.

그러나 그는 “학교 밖 청소년 모두를 학교에서 부적응한 학생, 중도 탈락한 학생으로서 그들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전하기도 했다. 행사에는 김병욱·박찬대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이 주관했다.”

조은식 기자

美 프랭클린 그래함, 文대통령 비공개로 만나 ‘한·미정상회담’ 성공 기원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박용국 기자

이 자리에서 그래함 목사는 한·미 정상 회담의 성공을 바라는 기도를 문 대통령에게 해줬다고 한다. 다만 청와대 측은 만난 시간과 날짜를 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는 빌리 그레이 목사의 아들로,

그 역시 미국복음주의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된 종교계 6인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번 만남은 한국교회 한 원로목사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28일 현재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아직 서울에 체류 중이며, 교계 유명 목회자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국 기자

외교부·선교단체 안전간담회 “선교, 조심해서..”

외교부는 지난 27일 오후 4시 한동만재외동포영사대사 주재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한 국내 선교단체 관계자 대상 안전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에서 활동중인 우리 선교사들의 안전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국정원 관계자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등 18개 선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 대사는 “올해 들어 중국, 파키ستان 등에서 활동 중인 우리 국민들이 현지법 위반 혐의로 현지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IS

가 국가를 침침한지 3주기가 되는 6월 29일 전후로 선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테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등 우리 선교사들에 대한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안전한 선교활동을 위해 선교사들 스스로의 안전의식 고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지적했다.

이어 한 대사는 ▶선교활동 시 현지법과 현지관습을 존중하고 ▶현지 공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단기 선교 인력을 파견하기 전에 피파견자들에게 해당 국가의 안전정보와 현지 선교 관련 법률

및 지역사회의 관습 등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충분한 교육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그는 ▶해외 선교계획을 수립 시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해외안전여행정보 보를 참고하고,

불가피하게 위험지역을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방문지 소재 우리 공관에 연락처와 방문 기간을 사전에 알려 위기 시 신속한 공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약 2만 7천명의 우리 선교사가 해외에서 활동 중이다. 특

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단기선교단 및 성지순례(약 4만 5천명 이상 추정)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교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국가별 로밍문자 발송 ▶지하철 및 옥외전광판 광고 ▶YTN 해외안전여행 특별방송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www.0404.go.kr>)와 SNS(<https://www.facebook.com/4ursafetravel>) 공지 등 선교활동 관련 안전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위험지역에서 선교활동 중인 우리 선교사들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비상연락망 구축 등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은혜 기자

이 자리에서 그래함 목사는 한·미 정상 회담의 성공을 바라는 기도를 문 대통령에게 해줬다고 한다. 다만 청와대 측은 만난 시간과 날짜를 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는 빌리 그레이 목사의 아들로,

그 역시 미국복음주의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된 종교계 6인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번 만남은 한국교회 한 원로목사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28일 현재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아직 서울에 체류 중이며, 교계 유명 목회자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국 기자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마22:37-40, 요21:15-17)



제가 일년
에 두 번씩 광
야교회에 와
서 여러분들
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설교
를 합니다. 작
년 2016년 2월
28일 주일에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당신과 같은
걸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고 강변교회 김명혁 목사

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10월 23일 주일에는 “병든 자들, 죄인들, 상처받은 자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2017년 6월 25일 광야교회에 다녀와서 “주님 사랑, 교회사랑, 이웃사랑, 자연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평생을 살아오면서 깨닫고 또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축복된 일은 사랑
을 하면서 사는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
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22:37-40).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요13:34).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여섯 제자들을 만나셔서 부탁하신 말씀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시고 세우신 교회와 양무리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려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와 들의 풀들을 입히시는 자연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 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마6:26-30). 그러면 이제부터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처음입니다. 첫째로, 주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 사랑보다 더 귀중하고 더 아름답고 더 축복된 것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호소하시면서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질문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네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서 왜 벌레와 같고 만물의 찌기와 같은 우리 죄인들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벌레와 같고 만물의 찌끼와 같은 우리 죄인들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글의 사랑의 고백을 맨드시기를 원하신다
고 생각합니다.

인간 쓰레기였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사랑에 놀아져서 맨날 울면서 지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여인은 주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 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눅 7:38)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눅7:47).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뉘8:1-3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기 때

즉 8.15에 국군과 미군이 함께 공항에 기관총입니다. “이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

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 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다른 여려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눅8:1-3). 우리 찬송가도 이렇게 찬송합니다. “값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 받아서 향기론 산 제물 주께 바치리”(창 346). 십자가 아래서 울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눈물로 쏟아냈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고 주일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달려가서 울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눈물로 토해냈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막다라 마리아가 섰는지라”(요19:25).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요 20:1,11).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에 녹아져서 자나 깨나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만 중얼거리면서 살던 사람 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사용하는 대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요 13:23).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요 20:2, 21:7)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

(요20:2, 21:7).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지극하게 받았고 예수님을 지극하게 사랑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이란 말을 30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지극히 사랑하시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키며 “보소서 아들이니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님이다 하시고”(요19:26).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도 요한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찌어다”(고전16:22).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1:20,21).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능욕과 궁핍과 펑박과 곤란을 기뻐한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펑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고후12:10).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신보다 세상보다 부귀 영화나 성공이나 명예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고, 성 프랜시스와 주기철 목사님과 이성봉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사랑에 녹아졌던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딤후3:1-4). 우리들이 앞으로의 남은 생애에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면서 살도록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 사랑과 함께 교회 사랑보다 더 귀중하고 더 아름답고 더 축복된 것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시고 세우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16:18).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행20:28). “교회는 그의 몸이니”(엡1:23).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1:24). 교회는 나무와 돌로 지은 집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

려서 사시고 세우신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찬246).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보통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시고 세우신 집입니다. 교회보다 더 귀중하고 더 거룩하고 더 축복된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 중의 한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내 어린 양”은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양 무리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치는 일보다 더 귀중하고 더 축복된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양 무리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치는 목자가 되었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라 예루살렘교회의 신자들은 주님의 교회를 자기 집보다 자기 일터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교회를 사랑하며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행2:46).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교회를 사랑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전혀 힘썼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시드인, 그리고 친구들을 빙그

를 전혀 힘쓰니라”(행2:42).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교회를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기를 전혀 힘쓰니라”(행2:42).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행2:42).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교회를 사랑하며 사랑과 구제와 봉사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행2:44,45) 주님의 교회를 자기 집보다 자기 직장보다 더 사랑하는 일보다 더 귀중하고 더 축복된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며 사모했는데 저들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쏟아 제사를 드려도 자기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빌1:8).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계로 드릴찌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빌2:17).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저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과 생명을 다 바쳐도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제물을 드리기로 뜨게 된 사실과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판국장 장세규 교계판국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구독신청 우리은행 1005-301-884992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1개월 15000원

미주 기독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허비하리니”(고후12:15). 사도 바울은 데 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도 너무너무 사랑하며 보고 싶어했는데 저들이 자기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고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이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로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살전2:17).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살전2:19,20).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사랑에 미친 사람이었고 교회 사랑에 미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로마에 가서 순교의 피를 흘리므로 악의 중심부인 로마에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와 양 무리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제물이 되는 것보다 더 귀중하고 더 아름다운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인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들은 자기 자신들보다 자기의 부모·처자들보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양 무리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자기 집이나 가정보다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거지와 같은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문 하나를 읽어드립니다.“주여 예양원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 금 예양원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를 사랑해심 같은 사람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약 저들이 나를 싫어하여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저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종말까지 싫어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가 이를 사랑한다 하오나 인위적 사랑, 인간적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보다는 더 사랑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또한 세상의 무슨 명예심으로 사랑하거나 말세의 무슨 상급을 위하여 사랑하는 유타적 사랑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에서 되는 사랑으로서 이 불쌍한 영육들만을 위한 단순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의 남은 생이 몇 해 일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몸과 맘 주께 맡긴 그대로 이 예양원을 위하여 충심으로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꾀 흘려서 사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양 무리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보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양 무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일보다 더 귀중하고 더 아름다운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또 부족한 죄인이지만 이를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주님과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 보다 더 좋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주일에도 교회에 가지 못하게 했고 학교에 오라고 했지만 저는 주일 날 한 번도 학교에 가지 않고 교회에 가서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요일마다 학교에서 별을 받았고 때로는 정학을 당했지만 저는 주일날엔 학교에 가지 않고 교회와 와서 종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주일을 거룩하게 지으며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는 11살 때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 38선을 혼자 뛰어넘어서 남쪽으로 왔습니다. 고향과 부모님을 떠난 슬픔과 아픔을 지니고 한 평생을 고아와 나그네로 살았지만 남한에 와서 주일 날 종일 교회에 가서 주님께 예배 드리며 봉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때는 대구로 피난을 가서 3년 동안 중학생 시절을 보냈는데 그 3년 동안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았고 주일에는 종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면서 지냈고 수요일 저녁에 배에도 빠지지 않았고 이성봉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부흥회에 12번은 참석하면서 깊은 은혜를 받은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과 대학생 시절에는 서울에 있는 창동교회에 다녔는데 담임 목사님이신 김치선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주일 아침과 저녁과 수요일 저녁은 물론 새벽기도회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와 예배와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했는데 주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가지 않고 종일 교회에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의 일과 고등부 종무의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김치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부흥회는 삼각산이든 관악산이든 어디든지 따라다녔는데 대구 주암산까지 따라다녔습니다. 대구 주암산 부흥회 어느 시간에 전송가 246장을 불렀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저는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라는 가사의 찬송을 부르다 말고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라는 가사가 저를 울리고 말았습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우니까 옆에 있던 어느 어른이 “학생 무슨 슬픈 일이 있어?”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도 못 하고 한 동안 계속해서 울기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꾀 흘려 사신 귀한 교회를 늘 사랑하여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무조건 왕십리로 갔습니다. 김치선 목사님께서 2만 8천여 동네에 우물을 파게 해 달라고 매일 기도하셨는데 저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왕십리에 우물을 파기 위해서였습니다. 토요일과 주일마다 왕십리 들판에 나가서 서울고등학교 학생의 교복을 입고 찬송을 부르며 아이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치고 천막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한양제일교회」라는 교회 간판을 달았습니다. 어린이들이 6십 여명 어른들이 4십 여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서울고등학교 3학년과 서울대학교 1학년 시절 2년 동안 토요일과 주일 왕십리에 가서 철없이 단순하게 개척 목회를 했는데 이 모두가 김치선 목사님으로부터 물려 받은 기도와 전도와 교회 사랑의 영적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꾀 흘려 사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일보다 더 귀중하고 더 아름답고 더 축복된 것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12년 동안의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귀국해서 후암교회에서 5년 동안, 영안교회에서 일년 동안 그리고 강변교회를 세워서 28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저의 모든 정성을 쏟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강변교회를 건축할 때는 제가 두 번째로 건축현금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다가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바치는 일보다 더 귀중하고 더 아름답고 더 축복된 일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했고 주기철 목사님과 이성봉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따라서 우리들의 집보다 우리들의 일터보다 우리들의 재산보다 우리들의 부귀나 영화보다 우리들의 생명보다 주님께서 꾀 흘려 사신 주님의 교회와 양 무리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다가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과 대학생 시절에는 서울에 있는 창동교회에 다녔는데 담임 목사님이신 김치선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주일 아침과 저녁과 수요일 저녁은 물론 새벽기도회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와 예배와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했는데 주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가지 않고 종일 교회에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의 일과 고등부 종무의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김치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부흥회는 삼각산이든 관악산이든 어디든지 따라다녔는데 대구 주암산까지 따라다녔습니다. 대구 주암산 부흥회 어느 시간에 전송가 246장을 불렀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저는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라는 가사의 찬송을 부르다 말고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라는 가사가 저를 울리고 말았습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2:37-40.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시면서 그 것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여기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이웃은 가족이나 친척이나 동족에 국한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 그리고 광부들 모두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수와 껌박자들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껌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마5:43-45). 예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편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시면서 우리들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10:37). 그리고 예수께서는 친히 문동병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셨고, 로마 백부장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셨고, 열병 환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셨고, 심지어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포악한 로마 군인들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펴셨고, 심지어는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우셨다(마19:1-4). “해와 달이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이 찬양할찌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찌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시매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폐치 못할 명을 정하셨다 너희 용들과 바다의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키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족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백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찌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전지에 뛰어나 심이로다”(시148:3-13). 성 프랜시스는 온갖 짐승들과 새들을 향해 형제 자매라고 불렀고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연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벌미로 자연을 학대하고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과 식물과 공기와 물과 빛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시편 기자

프가니스탄을 찾아 다니면서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 프랜시스와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싶어라”라고 중얼거리게 되었습니다. 이웃 사랑보다 더 귀중하고 더 아름답고 더 축복된 것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들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본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이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면서 살다가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자연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만 사랑하시지 않고 자연 만물을 세밀하게 살펴하시며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시104:10-15).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뒤으으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진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시147:8,9). 구약 성경은 자연의 위치를 매우 높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자연을 마치 사람들처럼 말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아있는 존재들로 묘사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우셨다(마19:1-4). “해와 달이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이 찬양할찌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찌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시매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폐치 못할 명을 정하셨다 너희 용들과 바다의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키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족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백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찌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전지에 뛰어나 심이로다”(시148:3-13). 성 프랜시스는 온갖 짐승들과 새들을 향해 형제 자매라고 불렀고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연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벌미로 자연을 학대하고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과 식물과 공기와 물과 빛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시편 기자

들처럼, 예수님처럼, 요나단 애드워즈처럼, 윌리암 워즈워스처럼, 한경직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제가 6년 전 2011년 7월 18일에 “동물 사랑, 식물 사랑, 자연 사랑, 사람 사랑”이란 제목의 글을 쓴 일이 있는데 그 글의 일부를 읽어드리므로 말씀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동물과 식물과 자연과 사람을 조금씩, 조금씩 사랑하며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이곳 저곳에서 개들을 만나면 가까이 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먹을 것을 주곤 했다. 물론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다음 언제나 남은 음식을 비닐 봉지에 싸 가지고 다니다가 길가나 집 근처에서 만나는 개들에게 다가가서 먹을 것을 주곤 했다. 내가 만난 개들은 그들의 배경이나 신분이나 모양이나 성격과 상관 없이 내가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먹을 것을 주면 곧 부드러워져서 반가움을 표시하며 먹을 것을 받아 먹곤 했다. 좀 사나운 개들도 있다. 그러나 곧 테도가 바뀌어진다. 요사이 한국에는 전처럼 길가나 집 근처에서 개들을 많이 만날 수는 있지만 중국 연변 지역에는 지금도 개들이 길 거리와 집 근처에 많이 있다. 내가 거의 매년 연변지역을 방문하여 고아 아이들을 돌아보곤 하는데 그곳에서 만나는 개들에게도 음식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 그 테도가 바뀌어진다. 그러나 곧 테도가 바뀌어진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시매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폐치 못할 명을 정하셨다 너희 용들과 바다의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키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족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백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찌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전지에 뛰어나 심이로다”(시148:3-13). 성 프랜시스는 온갖 짐승들과 새들을 향해 형제 자매라고 불렀고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연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벌미로 자연을 학대하고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과 식물과 공기와 물과 빛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시편 기자

“개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요사이 한국에는 전처럼 길 거리나 집 근처에서 개들을 많이 만날 수는 있지만 중국 연변 지역에는 지금도 개들이 길 거리와 집 근처에 많이 있다. 내가 거의 매년 연변지역을 방문하여 고아 아이들을 돌아보곤 하는데 그곳에서 만나는 개들에게도 음식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 그 테도가 바뀌어진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시매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폐치 못할 명을 정하셨다 너희 용들과 바다의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키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족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백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찌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전지에 뛰어나 심이로다”(시148:3-13). 성 프랜시스는 온갖 짐승들과 새들을 향해 형제 자매라고 불렀고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연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벌미로 자연을 학대하고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과 식물과 공기와 물과 빛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시편 기자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